

“야구장에 안맞는 조형물”

광주 새 야구장 설치 ‘광주 사람들’ 뒷말 무성

“아비규환 ‘지옥도’ 같다”

부적합 의견 확산

일본 캐릭터 표절의혹도

광주의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설치되는 조형물 ‘광주 사람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어둡고 암울한 이미지가 연상돼 화려한 신축 경기장 상징 조형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는 등 논쟁이 뜨겁다.

올해 말 완공되는 광주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외야석에 설치될 조각품 ‘광주 사람들’ 중 작품 일부인 공을 형상화한 ‘인간군상구’가 논란의 핵심이다. ‘광주 사람들’은 광주시가 새 야구장 건립공사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조각가 배현씨가 화강석과 브론즈로 만들었다.

선정 당시 “야구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야구장 이미지에 가장 적합하고 다수의 인체가 결합한 공의 형태에서 야구를 통해 하나된 광주사람들을 형상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선정작 공개 뒤부터 광주 시민의 단합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작가 의도와 달리, 5·18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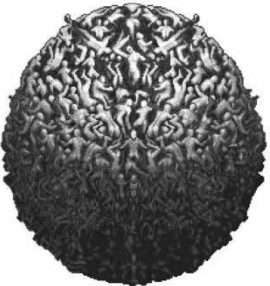


‘광주 사람들’의 인간군상구 조감도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 때문에 신축 경기장 상징 조형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광주시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오는 실정이다. ‘무자비작구’라는 아이디로 야구 사이트 ‘MLB PARK’에 글을 올린 누리꾼은 “사람이 공처럼 뭉쳐서 아비규환을 그려낸 모습이 ‘지옥도’를 연상케 한다”고 썼다.

여기에 18일 일본 게임 캐릭터를 표절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일본 게임회사 코나미사가 발매한 게임 ‘악마성’ 시리즈 중 나오는 ‘레기온(legion)’과 인간군상구가 닮았다는 것으로, 관련 사진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고



일본 게임 캐릭터 ‘레기온’

있다.

광주시는 이와관련, “분위기가 다소 어둡다는 의견을 수렴, 광주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건의해 수정·보완 할 계획”이라며 “표절 의혹의 경우 한국조각가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환경단체 ‘한빛 2호기 부실정비 의혹’ 진정

원안위, 가동정지 정밀검사

최근 허가받지 않은 정보로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한빛 2호기에 ‘부실정비 의혹’에 대해 지역환경단체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안정성 검사를 위해 한빛 2호기의 가동을 이달 말 정지하고 정밀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20일 영광해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두 단체는 한빛 2호기 ‘부실정비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은 보수업체인 두산중공업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며, 진정서에는 부실점검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비 절차 무시, 승인받지 않은 용접 재질의 무단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 2호기는 제20차 계획예방정

비 기간에 진행된 증기발생기 배수로 군열 용접 중 보수 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승인되지 않은 재료로 용접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문제가 됐다. 이 후 구성된 원안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절차와 방안이 검토한 끝에 최근 영광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오는 30일 정밀조사를 위해 한빛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 이를 원안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은철 원안위원장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안정성 검사와는 별도로 두산중공업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대해 책임을 물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한빛 2호기를 둘러싼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영광=조익식기자 ischo@

고속도로 휴게소

호두과자

국내산 호두 없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대표적 인기간식 호두과자의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국내산 호두와 팥을 쓰는 휴게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두과자로 이름난 충남 천안의 휴게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휴게소 176곳 가운데 95%인 158곳이 호두과자의 주재료인 호두로 미국산을 썼고 나머지는 칠레산, 호주산 등을 사용했다. /연합뉴스

함평 상곡리 도로 ‘건설비리’ 총집합

■ 60억원 짜리 3.8km 도로 확·포장공사

불법 하도급 - 계약 원천금지된 일반건설업체에

부실 시공 - 보강토 옹벽 등 기준 미달 확인

관리·감독 부실 - 공사 마무리 후 감리업체 선정

함평군의 60억원 짜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불법 하도급·부실 시공·관리 부실 등 건축 부조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함평군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12월 함평군과 해보면 상곡리 일대 도로 3.8km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구간을 다른 건설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상 A건설은 3.8km 전 구간을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구간 내 일부 구조물 공사(보강토 옹벽·계비온 옹벽 등)와 토공 구조물공사들 B건설과 C건설 등 2곳에 하도급을 줬다. B건설의 경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일반건설업체다.

또 두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

에서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도 받지 않았고 관련 사실 통보 등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땐 하도급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뒤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하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어긴 ‘불법’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부적격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해당 구간 감리업체는 최근 B건설 시공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침하 정도를 확인하는 ‘평판 제하시험’을 진행해, ▲보강토 옹벽(274m) 다짐도 수치 ▲계비온 옹벽(165m) 다짐도 수치가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리업체는 두 분반 다짐도가

기준치(30kg/cm)에 훨씬 못 미치는 7~12.7kg/cm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감리업체는 또 6m 가량의 배수로 바다 두께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상 두께(24cm)에 못 미치는 10.6~20cm로 공사가 진행된 점을 밝혀냈다. B건설 관계자는 “시현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50cm마다 수행해야 하는 다짐도 검사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부실 공사가 이뤄진 데는 허술한 관리·감독이 한몫을 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함평군은 하도급 업체 시공 구간이 대부분 마무리된 지난 5월에야 책임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생색내기’ 식으로 감독,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A 건설에 대한 불법 하도급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정밀 조사를 벌여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공사 과정의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안마 시원하시죠?” 19일 광주송의중학교 학생과 졸업생 등 40여명이 경로의 달을 맞아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인애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음악 공연과 안마 등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웃음꽃을 피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말·휴일 교통사고·화재 3명 사망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서 교통·화재 사고가 잇따라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20일 새벽 2시에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S오양병원 앞 편도4차선 도로에서 김모(25)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들이받아 김씨가 숨지고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신흥동주민센터 앞

골목길에서 강모(58)씨가 운전한 1톤 화물차량이 보행자 이모(여·70)를 치어다. 이 사고로 이씨는 119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좁은 골목길에서 강씨가 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재도 잇따랐다. 20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생웅동 광주패밀리

랜드 내 해양관에서 불이 났다. 입구에서 발화된 불은 전체 면적 1320㎡ 중 330㎡ 등 시설 내부를 태우고 그늘을 등 피해를 입혀 3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8시10분께 화순군 동면 장동리 A농기계수리센터에서 불이 나 주민 문모(55)씨가 숨졌다. 문씨는 가게 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다 번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

/화순=조성수기자 css@

웃침



“로도 되면 돈 줄게”

범원 “약속 지켜야”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문모씨가 지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점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반 채무와 같이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면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11년 5월 경기 성남에서 최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로또 복권 너 장을 사서 한 장씩 나눠줬다. 복권을 받은 최씨는 “1등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문씨는 최씨가 실제 로또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은 뒤 8000만원만 주자 1억2000만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고물 줘다 골프채 훔친 경비원

○“부업으로 고물수집을 하고 고가의 골프채를 훔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서행.

○“2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장모(68)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A골프용품점에서 주인 배모(31)씨가 골프채를 하려고 주차장에 놔둔 시가 250만원 상당의 골프채 4개를 가져갔다는 것.

○“장씨는 경찰에서 “쉬는 날 고물을 주려고 다녔다 배씨의 주차장에 골프채가 있길래 버린 줄 알고 가져갔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아파트]					
2013타경 13717	1	서구 금호운전길 83, 107동 3층 301호 [상촌동, 상우푸르지오] 131.8918㎡	아파트	390,000,000 390,000,000	
2013타경 14253	1	광산구 송도로182번길 55, 101동 4층 409호 [도산동, 도산동1차대우파크빌] 84.98㎡	아파트	134,000,000 134,000,000	토지별도물기있음
2013타경 14772	1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22, 210동15층1502호 [수원동, 수원2차우미린아파트]184.7885㎡	아파트	232,000,000 232,000,000	
2013타경 14901	1	동구 문림길 23, 101동 1층 107호 149.84㎡	아파트	188,000,000 188,000,000	임대차관계불분명
2013타경 16730	1	북구 용봉동 1066 용봉동2차대우파크빌 202동 6층 603호 84.9843㎡	아파트	174,000,000 174,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15584	1	동구 동명동 117-11 175.2㎡ [현황:일부방, 창고등] 2층 주택83.859㎡ [현황:일부방, 창고등] 2층 주택80.159㎡	단독주택	182,107,120 182,107,120	일괄매각, 임대차관계불분명, 공부상1층주차장일부방및창고로이용중
2013타경 16990	1	광산구 우산동 1049-7 90㎡ [현황:사람로118번길 35-17 일용품소매점, 다리가구주택, 사무소 1층52.01㎡ 2층49.28㎡ 3층49.28㎡ 지하60.17㎡] 제1외와 창고 등 27.2㎡	다가구주택	122,853,260 122,853,260	일괄매각, 제1외와 창고등 포함, 임차인있음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3타경 16877	1	북구 봉향동 359-18 188㎡ [현황:고사길17번길 6-7 1층98.00㎡ 2층98.00㎡] 제1외와 주택일부 등 40.8㎡	다세대	164,319,600 164,319,600	일괄매각, 제1외와 건물포함, 임차인있음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13854	1	나주시 용산동 84-4 1229㎡	답	78,656,000 78,656,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분묘소재
2013타경 14376	1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산31 140628㎡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분묘소재]	임야	15,206,680 15,206,680	
2013타경 15317	1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49 731㎡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분묘소재]	과수원	9,751,660 9,751,66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분묘소재
2013타경 15430	1	동소 50-2 1144㎡ [목책1과지분통일]	과수원		일괄매각, 목책5년분묘소재
2013타경 17962	1	화순군 남면 장전리 489 1375㎡ [매각외전지]	전	13,750,000 13,7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13타경 17962	1	남구 임광동 산83-8 489㎡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분묘소재]	임야	4,890,000 4,89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3타경 13373	1	광산구 비아동 152-5 하남지구호반아파트 상가 102동 2층 201호 131.6㎡	근린시설	160,000,000 160,000,000	
2013타경 17597	1	북구 무동로180번길 12, 7층 737호 87.50㎡	근린시설	80,000,000 80,000,000	임차인있음
[기타]					
2013타경 7309	1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4-4 3838㎡ [현황:황룡면 황룡리 198 1층534.80㎡ 2층202.96㎡ 3층202.96㎡] 제1외와 기계기구2식	공장	630,265,320 630,265,320	일괄매각, 제1외와 기계기구포함, 목책5,6,7번농지전용허가된토지임, 임대차관계불분명, 목책1-4:공정차당비제7조에의한 기계기구특별설치와갈음
2013타경 17399	1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474-2 660㎡ [현황: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67-36 1층143.30㎡ 2층143.30㎡ 2층52.20㎡] (사무소) 112.00㎡ [현황:소재불면] 제1외외적업장 등 437.7㎡	공장	71,893,500 71,893,500	일괄매각, 제1외와 건물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절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각시 대금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가액 : 2013. 11. 4. (월) 10:00
3. 매각절기 : 2013. 11. 11.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하지 기입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가매각의 10%(이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금)를 준비하여 넣는다.
② 입찰의 대상이 공공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입찰자등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내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중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하고, 최고, 가중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로부터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잔여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원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 가중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절기일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한다. 다만, 매각허가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지정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허가, 비등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권이 상실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증지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전환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속박하여 준다.
③ 매각대금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특약은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소유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만주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입찰보증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내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중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하고, 최고, 가중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로부터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별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에 비하지 기입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가매각의 10%(이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금)를 준비하여 넣는다.
⑤ 입찰의 대상이 공공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입찰자등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입찰보증의 투입이 종료되면 관내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중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하고, 최고, 가중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로부터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⑦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잔여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원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